

## 최근 북한의 공장·기업소 구조조정

김광인 / 연합뉴스 북한부 기자

**기** 일성 주석 사후 지난 5년간 북한이 직면한 현실은 실로 가혹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김 주석 사망이 가져다준 심리적인 충격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100년 이래의 최대라는 대규모 홍수가 연이어 북한 전역을 강타했고 설상가상격으로 가뭄과 냉해가 겹쳐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 주민들은 옛 이야기 책이나 나을법한 草根木皮로 연명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으며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30%대를 맴돌아 계획 경제의 틀이 기반부터 흔들리는 처지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런 현실을 이겨내기 1996~97년 '고난의 행군', 1998년에는 '사회주의 강행군'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구보행군'이라는 새로운 행군길에 올라 있다. 고난의 행군이란 30년대말 김 주석이 이끄는 항일빨치산들이 중국 길림성 몽강(江: 現 靖宇)현 남패자로부터 압록강 연안 국경지대인 장백(長白)현 북대정자까지 영하 40도의 혹한과 배고픔을 이겨내며 일본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결행했다는 행군을 말한다.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최악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곧잘 반추하는 이 고난의 행군을 금세기 말에, 더욱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편린이 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에 이은 사회주의 강행군이나 작금의 구보행군은 표현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현재 난국 극복을 위해 벌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노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실로 눈물겨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총비서가 지난 1998년 1월 중순 자강도 인민 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 지도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김 총비서는 종래 군 부대 일변도의 현지 지도 행태를 보여 '발등의 불'인 민생을 외면하고 군 부에만 신경을 쓴다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계기로 두 달 뒤인 3월 9일 함북 김책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성강)를 비롯해 경제 부문에 대한 발길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강계정신', '자강도 사람들의 일본새', '성강의 봉화'라는 새로운 경제 선동 구호를 내놓으며 경제 살리기에 나름의 의욕을 보였다.

강계정신과 자강도 사람들의 일본새는 그

의미를 풀어내자면 장황함을 피할 수 없겠지만 핵심은 자력갱생과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귀착된다. 말하자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말고 맡겨진 과제를 무조건 수행해낸다는 결사관철의 투쟁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일컫는 것이다.

성강의 봉화는 새로운 생산혁신운동을 시작할 때 특정한 단위를 본보기로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운동의 선봉에 서게 함으로써 전체 단위들의 호응을 유도케 하는 북한 특유의 경제 운용 방식의 하나이다. 상기한 김 총비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 지도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북한이 지난해부터 벌여오고 있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선도하는 경제 선동의 기치로 널리 회자돼 왔다.

### '성강'서 '낙원'으로 봉화 바뀌들어

그런데 북한은 올 들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기치를 성강의 봉화에서 낙원의 봉화로 바뀌들어 이목을 모았다. 낙원의 봉화는 성강의 봉화와 마찬가지로 김 총비서의 낙원기계공장 현지 지도가 단초가 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1월 25~28일 평북 공업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신의주시에 있는 낙원기계공장을 방문, 이 공장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주역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낙원기계공장은 2월 3일 현지에서 종업원 쫓기모임을 열고 전국의 공장·기업

소에 생산 혁신과 분발을 호소, 낙원의 봉화에 불을 지폈다.

이어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월 6일 "새로운 호소따라 새로운 대고조어로" 제하의 사실을 통해 낙원의 봉화를 공식 제창했다. 신문은 "성강의 봉화에 이어 타오른 낙원의 봉화는 강계정신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의 봉화"라며 낙원의 봉화따라 전체 주민들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궐기하자고 역설했다.

이후 안주·덕천탄광과 무산광산, 김책제철소, 김종태전기관차공장 등 수많은 생산단위들이 낙원기계공장 종업원들의 호소에 호응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2월말 현재까지 이같은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북한의 신문·방송들은 연일 낙원의 봉화를 고창하며 생산 정상화와 당원·근로자들의 노력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

### 공장·기업소 구조조정 단행, 주목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올해 초에 걸쳐 인민 경제 각 분야의 주요 공장·기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져 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른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 조직 형

태로 일컬어지는 연합기업소 가운데 15 개 정도가 일반 공장·기업소로 개편됐으며, 함남 함흥의 용성기계연합총국이 용성기계공업 관리국으로, 각 道 입업연합총국이 도입업관리국으로 각각 격하됐다. 또 종합공장·종합기업소도 10여 개 이상이 일반 공장·기업소로 격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월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도 총 40여 개에 이르는데 아직 구조조정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외형 축소·인민 경제 전부문 망라

공장·기업소 구조조정은 크게 ① 전반적으로 규모나 형태를 대폭 축소, 격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② 인민 경제 전분야에 걸쳐 폭넓게 진행됐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 일종의 기업연합체인 연합기업소를 한 두 개만 남기고 대부분 일반 공장·기업소로 격하시킨 점이 눈에 띈다. 연합기업소는 생산 활동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공장·기업소들, 또는 원료·연료 생산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기업을 하나로 묶어 계열생산체제를 형성하는 트러스트의 일종이다.

이를 조직 형태별로 살펴보면 크게 ① 일정 지역내 주로 중화학 기업을 관련 기업과

수직적으로 결합한 형태(김책제철연합기업소), ② 주로 채취 공업 부문 등에서 관련 기업을 수평적으로 결합한 형태(00지구탄광연합기업소), ③ 기계 등 특정 산업의 전문화된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결합한 형태(수력발전소건설연합기업소)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대형 연합기업소의 경우 그 산하에 20~30여 공장·기업소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0여 개 정도의 공장·기업소가 하나의 연합기업소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공장·종합기업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연합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 1971년 채취 공업 부문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1985년 주요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해왔으며 그동안 북한 공업 생산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연합기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사실상 연합기업소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북한 공업 관리 형태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례로 북한 최초의 연합기업소로 꼽히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 천리마운동의 상징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새해 공동 사설에서 강조한 바 있는 '낙원의 10명 당원'을 배출한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등이 포함됐다. 또 '주체섬유' 비날론의 산실인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수백 년을 캐고

도 남는다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합기업소의 명패를 온전히 유지한 곳은 함북 김책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평양 상원군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두 곳에 그쳤다. 성진제강의 경우 김정일 총비서가 지난 1998년 3월 이곳을 현지 지도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선창했던 본보기 단위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강의봉화'라는 구호를 낳은 김 총비서의 이곳 현지 지도는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56년 12월 강선제강소(현 천리마제강소)를 방문한 후 천리마운동의 기치를 들었던 사실과 곧잘 비교되기도 한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경우 내각에서 지도·관리하는 '인민 경제'에 소속된 기업체가 아니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관장하는 '당경제'에 속해 있는 단위여서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업 경영의 충실도와 함께 이 기업소가 북한에서 환경 친화적 생산 단위의 표본으로 방북하는 외빈들의 필수 견학 코스가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

공장·기업소 구조조정의 외풍은 연합총국과 종합공장·종합기업소에도 미쳤다. 연합총국, 종합공장·종합기업소는 자산 규모나 외형에서 연합기업소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 공장·기업소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기관차·객화차 전문 생산 공장인 김종태

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가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으로,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평남 덕천시의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이 승리자동차공장으로 간판을 갈았다. 또 방직공장의 대명사인 평양종합방직공장이 평양방직공장으로 바뀌는 등 확인된 것만도 10여 개를 웃돈다.

생산 단위 구조조정의 대상이 인민 경제 전분야에 걸쳐 진행됐다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의 범위와 방향을 읽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인민 경제의 선행 부문', '사회주의 건설의 전조선'으로 불리는 전력·석탄 공업뿐만 아니라 기계·화학·금속·건재공업과 경공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고 있다. 북한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술대에 올렸다는 것은 이번 조치가 땀질식 손질이 아니라 과감하고도 전면적인 처방이었음을 말해준다.

## 새 계획 수립 시점·공장 가동률 저하가 배경

그러면 이같이 공장·기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어떻게 새겨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나 설명이 없어 무엇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앞에서 개략적이거나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년간 북한 경제 흐름에 대한 천착을 통해 그 변화상과 맥락을 짚어보면 일말의 분석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우선, 북한이 지난 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 직후 공장·기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려진 대로 이때는 제3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1987~93년)이 끝나는 해로 북한은 지난 7년간의 경제 건설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 이번의 구조조정은 그때로부터 6년만으로 새로운 평가와 결산, 그리고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조조정의 규모와 범위가 컸다는 것은 이것이 최근 장기적인 침체 속에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업 구조의 복잡성이 높은 연합기업소 체제 하에서 개별 공장·기업소의 부실은 바로 연관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연합기업소 운영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90년대 들어 북한 경제는 負의 성장을 거듭해왔고 이는 극심한 식량난, 원료·자재난, 에너지난으로 이어져 북한 경제를 파산 상태로 몰아갔다. 식량난은 주민들이 식량 구입을 위해 직장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빼앗아 버렸다.

‘내부 예비 탐구·동원’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서 실감하고 있는 원료·자재의 부족은 일감이 있고 근로 의욕이 높아도 일할 수 없는 현실을 낳고 있다. 또한 에너지 결핍은 “전력·석탄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이라고 강조한 신년 공동 사설이 시사하는 바 그대로 오늘날 북한 경제의 목을 죄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계획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장·기업소의 가동률 30%는 이미 ‘계획 경제’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관리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제 관리의 분권화가 과도한 중앙 집권적 공업관리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공장 가동 중단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중앙 집권적 계획의 작성·집행·총화가 기업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1998년 9월 주식제로 대표되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 내각제 형태의 새로운 국가 권력 구조를 마련했다. 새 헌법의 특징 가운데 경제 부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내각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인민 경제를 내각에 전적으로 일임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권력 기구 정비를 통해 새로운 경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파행과 부실로 얼룩진 연합기업소 중심의 기업관리체제를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새로 제정해 내각이 기업 관리의 고삐를 움켜쥐고 경제를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업 경영 내실화·실리 추구 겨냥

그렇다면 북한이 공장·기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의미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첫째, 사실상 연합기업소 폐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과거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근로 대중의 창의성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그 우월성이 강조돼온 연합기업소의 계획 단위·집행 단위·생산 단위로서의 중간 관리 기능이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 연합기업소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 실패의 자인을 꺼리는 오랜 습성과 연합기업소 체제의 상징성의 끊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당국의 아집이 빚은 결과에 불과하다.

둘째, 북한 공장·기업소의 구조조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남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기

업 경영의 내실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생산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려는 실용주의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유사한 맥락이지만 생산 단위의 '실리 추구' 경향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공장·기업소의 실리 추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년 공동 사설에서 이 점을 재차 언급했다. 김 총비서도 지난해 6월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공장 건물만 요란하게 지어서는 소용이 없다. 경공업 공장에서는 인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상품을 많이 생산해야지 멋따기놀음(멋부리기)을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계획 경제의 틀을 바꿀 만한 '특단의 조치'로 표현되기도 하는 북한의 이같은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 나빠질 여지가 없다는 지적대로 지나긴 인고를 딴고 회생의 기회를 맞을지 두고 볼 일이다. 

〈표〉 북한 공장·기업소 구조조정 현황

| 부문         | 개편 전  | 개편 후   |
|------------|---|--|
| 광업         | 2·8직동청년탄광종합기업소<br>덕천탄광종합기업소<br>강동탄광종합기업소<br>천성청년탄광종합기업소<br>득장탄광종합기업소<br>신창탄광종합기업소<br>검덕광업연합기업소<br>무산광산연합기업소<br>상농탄광연합기업소  | 2·8직동청년탄광<br>덕천탄광<br>강동탄광<br>천성청년탄광<br>득장탄광<br>신창탄광<br>검덕광산<br>무산광산<br>상농탄광  |
| 금속·기계·전자공업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br>황해제철연합기업소<br>김책제철연합기업소<br>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br>낙원기계연합기업소<br>남포제련종합기업소<br>회천공작기계종합기업소<br>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br>승리자동차종합공장<br>6월4일차량종합기업소<br>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br>나남탄광기계종합기업소<br>10월5일자동차화학공장<br>6월5일전기종합공장<br>용성기계연합총국 | 천리마제강소<br>황해제철소<br>김책제철소<br>대안중기계공장<br>낙원기계공장<br>남포제련소<br>회천공작기계공장<br>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br>승리자동차공장<br>6월4일차량공장<br>금성뜨락또르공장<br>나남탄광기계공장<br>10월5일자동차화학공장<br>6월5일전기광장<br>용성기계공업관리국 |
| 전력공업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br>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br>순천화력발전연합기업소<br>청진화력발전연합기업소<br>3월17일수력발전종합기업소<br>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br>대동강발전종합기업소   | 평양화력발전소<br>북창화력발전소<br>순천화력발전소<br>청진화력발전소<br>3월17일수력발전소<br>태천수력발전소<br>대동강발전소  |
| 화학·건재공업    | 2·8비날론연합기업소<br>홍남비료연합기업소<br>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br>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br>단천마그네사종합공장<br>남포유리연합회사   | 2·8비날론공장<br>홍남비료공장<br>남흥청년화학공장<br>순천시멘트공장<br>단천마그네사공장<br>남포유리공장  |
| 경공업        | 평양종합방직공장  | 평양방직공장   |
| 임업         | 양강도 임업연합총국<br>자강도 임업연합총국<br>함북 임업연합총국   | 양강도 임업관리국<br>자강도 임업관리국<br>함북 임업관리국   |